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간의 관계: 공감 및 강간통념의 중재 및 매개효과*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공감 및 강간통념이 완충역할을 할 것인지, 더불어 과잉 남성성은 공감 및 강간통념을 통해 성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대학에 재학중인 남자대학생 355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과잉남성성척도, 공감척도, 강간통념척도, 성적공격성 척도 등이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과잉남성성, 공감, 강간통념 등이 성적인 공격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공감이 중재변인으로 확인 된 반면, 강간통념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성성이 높으면서 남성, 공감수준이 낮은 남성이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높은 성적공격성을 보였다. 구조방식 모형을 통해 살펴 본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과잉남성성과 성적공격성의 관계에서 공감 및 강간통념이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과잉 남성성에서 성적공격성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여 공감과 강간통념은 이들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과잉남성성, 성적공격성, 공감, 강간통념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교신저자: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139-774)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3(공릉동 126)
Tel : 02-970-5885, E-mail : kpark@swu.ac.kr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공격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남녀 노소 모두 성적 공격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성적 공격성의 문제는 대부분 성인 여성에 대한 성인 남성의 성적 공격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Tjaden & Thoennes, 2000). 성인 여성의 20% 정도가 강간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Koss, 199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의 무려 40%가 최소한 한번의 강간을 경험하였거나 강간미수를 경험하였다고 한다(Russell, 1982). 또한 성폭력의 거의 1/3이 면식자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고되고 있다(Tjaden & Thoennes, 2000).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한국형사 정책연구원(2005)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연구에 의하면 가벼운 추행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76.3%, 심한 추행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23.7%, 강간미수의 피해 경험은 14.1%로 나타나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대생의 15-30%는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며 54-77%가 성폭력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Koss, Gidycz, & Wisniewski, 1987; Mills & Granoff, 1992). Koss 등(1987)은 남자 대학생의 25%가 어떠한 성적 공격성을 표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Mills 등(1992)의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의 23%가 상대방 여성이 수용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경현, 이경순(2002)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30% 이상이 성폭력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이는 대학 내의 성폭력 실태에 관한 이미경(2001)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서울 소재 여자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28.3%가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학도 심각한 성폭력 문제에서 예외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의학회의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는 공중보건의 문제 가운데서도 성폭력과 아동기 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관심과 새로운 연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성적 가해의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으로 이어지면서 가해의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초기 발달이 성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이어졌다. 즉,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성적 공격성을 포함한 정신건강과 행동적인 문제로 발전 될 가능성이 높다(Fantuzzo & Mohr, 1999; McGruder-Johnson, Davidson, Gleaves, Stock, & Finch, 2000)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성 피해 경험은 장기적 후유증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높고 성인기의 심리적 증상 및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김정규, 김중술, 2000; 송진경, 2003; 박경, 2006)

성적으로 공격적인 이들의 공격성 표출에 대한 소질적인 변인과 상황적인 변인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이론적인 모델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델 중의 하나가 성적 공격성에 대한 ‘Confluence Model’로서 이는 성적 공격성은 적대적인 남성성(Hostile Masculinity)과 비인격적 성(Impersonal Sex)으로 명명된 두 변인이 발달적 경로에서 상호작용하거나 합하여져서 야기된다는 이론이다(Malamuth, Sockloskie, Koss, & Tanaka, 1991). 이 모델은 성적으로 공격적이지 않은 남성과 공격적인 남성을 변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

대적인 남성성의 경로에 대한 이 모델에서의 논리에 의하면 부모 자녀간의 적대적이고 혼돈스럽고 학대적인 가정환경 속에서의 상호작용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도 적대적인 도식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즉 어린시기 형성된 적대감은 개인의 사회적 타협기술의 발달을 손상시키고 대인관계에서 친밀감 형성과 유지를 저해하며, 특히 성적 관계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성적 가해 집단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손상을 나타내며 이는 부적절한 발달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 또한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적대적인 남성성이 성적 공격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연구한 Malamuth, Linz, Heavey, Barnes 및 Acker(1995)에 의하면 적대적인 남성성은 10년 뒤의 성적 공격성이나 다른 유형의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었다.

성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자들은 Malamuth 등의 적대적 남성성과 비인격적인 성을 포함한 남성성의 확장 개념으로 과잉남성성(hypermascuninity)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과잉 남성성이란 경직된 성역할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남성적 지위나 성적 권력을 통해 남성적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특징인 과장된 남성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Mosher, & Sirkin, 1984). 이러한 과잉 남성성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서 여성에 대한 굳어진 성적태도 내에는 여성에 대한 민감하고 적대적인 남성성과 폭력을 남자다운 것으로 보는 태도, 위협을 재미로 여기는 태도, 비인격적인 성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Darling-Millooy(1998)은 성적으로 공격적인 이들의 치료적 개입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손상으로 과도한 남성성과 공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러한 손상이 가해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구별

해 준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Farr, Brown 및 Beckett(2004)는 일반 청소년과 성피해 가해 청소년들의 과잉남성성과 공감능력의 차이를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 과잉남성성 척도총점 상에서는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여성에 대한 냉담한 태도 및 여성과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의 하위척도 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이성애에 대한 공감에서는 총점과 하위척도 모두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국, 과잉남성성은 성적 공격성 표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공감은 성적 공격성 표출을 감소시키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공감의 부족은 가해청소년들의 발달적 배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심리적 특징이다. 공감이란 타인의 단서를 읽고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능력으로서 Ryan(1997)은 정상발달에 있어 아동의 의존 욕구를 충족키 위한 공감적인 돌봄은 매우 중요하고, 돌봄의 경험을 통해 타인의 단서에 대해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시에 공감은 학대행동을 제지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공감능력이 발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행동문제가 초래 될 것으로 보았다. 공감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Briggs, Doyle, Gooch, & Kennington, 1998). 여성에 대한 냉담한 성태도는 성피해 가해자들의 공감 부족과 관련이 있는데 과도하게 남성성이 높은 남성들의 경우 여성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 공감적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부적절한 성행동을 통해 표출된다고 하였다(Norris, George, Cue Davis, Martell, & Leonesio, 1999; Linsey, Carlozzi, & Eells, 2001).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볼 때, 과잉남성성

이 공감을 통해 성적공격성으로 이어질 가능성, 즉 매개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겠다. 또한 Wheeler, George 및 Dahl(2002)은 Confluence 모델을 기초로 과잉남성성이 성적인 공격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감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같은 수준의 과잉남성성을 지닌 남성이라 하더라도 공감수준에 따라 성적공격성은 달라져, 공감수준이 높은 남성이 경우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성적공격성을 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높은 공감수준은 과잉남성성이 높은 위험군에 속하는 남성들에게 있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 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동시에 성적 가해자들의 공감에 대한 연구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부분도 발견되고 있다. 예컨대 공감이 성피해 가해자 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연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연구(Covell & Scalor, 2002)가 있으며, 공감 부족과 상습적인 가해 간에 어떠한 유의미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은 연구도 있다 (Maletzky, 1993; Reddon, Studer & Estrada, 1995).

Hall과 Barongan(1998)은 공감이 성적공격성의 감소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강간통념은 인지적 변인으로서 성적 공격성의 표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므로 성적인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한 인지적 중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남성의 성적 공격성에는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지지하는 문화적인 신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강간통념은 남성성과 남성의 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성이 강간신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의 강간통념이란 강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실과는 다

른 생각(김선영, 1989)으로서 예컨대 ‘강간이 일어나게 된 것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크다’와 같은 생각들이다. Locke와 Mahalik(200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잉남성성을 보이는 남자대학생은 성적인 공격 행동과 강간 통념에 대해 수용적이고, 동성애자를 경멸하는 경향이 있는 남학생 집단도 강간에 대해 수용적이었고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남성의 성적인 공격성을 정당화하고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강간 통념의 연구들은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남성성이 강간에 대한 지지적인 신념을 고수하는 남성의 태도와 공격적인 성행동을 예측해 준다고 보았다(Bunting & Reeves, 1983; Mosher & Anderson, 1986).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은 과도한 남성성을 반영하는 성차별적인 신념, 예컨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하며 여성은 성적인 만족을 위해 존재한다는 등의 사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puto, Frick, & Brodsky, 1999). 또한 남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데이트 강간에 대한 지지적인 태도(Truman, Tokar, & Fischer, 1996) 및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Davis & Liddell, 2002). 더불어서 남성성에 대한 남성의 신념과 기대가 그들의 성적인 공격성을 일관성 있게 예측해 주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병해, 고재홍, 2006)에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 보다 더 높은 성차별 태도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보다 피해여성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크게 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볼 때, 과잉남성성이 성적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 들 간의 관계에서 강간통념

에 대한 비수용적 태도가 완충역할을 하거나 강간통념을 매개로 하여 성적공격성의 표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적 공격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 성적 공격성의 한 형태인 데이트 성폭력의 심각성과 관련 변인들을 규명한 연구들이 몇몇 있다(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서경현, 2002; 안귀여루, 2006).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경현 등(2001)의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데이트 폭력의 사회 학습적 변인과 분노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특성 분노, 폭력 환경에 대한 노출 등이 데이트 폭력의 예언변인임이 확인되었다(서경현, 2002). 이 밖에도 안귀여루(2006)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들의 연구를 개관하여 통합적인 모델을 상정 한 바 있다.

성폭력의 문제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 피해나 피해자에 초점을 둔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성폭력의 가해나 성적 공격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송원영(2005)도 성폭력 가해 청소년대책을 위한 가해자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서구의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성적인 폭력과 관련한 경험적인 연구가 누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적공격성과 과잉남성성, 공감, 강간통념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공감과 강간통념이 성적공격성의 유발에 있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

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성폭력이나 성적 공격성을 표출하는 다양한 행동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남성의 성적 공격성 문제의 예방 교육이나 재발방지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과 지방 소재 2개 대학교의 남자 대학생 403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거나 설문지에 기재한 양상이 신뢰롭지 못한 48명을 제외한 총 355명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령 평균은 21.24세(SD=1.08)이었다. 이들의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이 85명(23.9%), 2학년이 163명(45.9%), 3학년이 76명(21.4%), 4학년이 31명(8.8%)이었다. 전공 영역은 인문사회과학 계열이 136명(38.3%), 이공계열이 150명(42.2%), 예체능 계열이 69명(19.4%)으로 나타났다.

연구 도구

과잉 남성성척도

과잉 남성성을 측정하기 위해 Mosher와 Sirkin(1984)이 개발한 과잉 남성성 척도를 신행우(2001)가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서 각각의 문항은 두 가지의 진술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응답자가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한 문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문이 포함되는데 “나는 완전히 동의한 여성들

과만 성 관계를 갖기 원한다.”, “나는 성 관계를 맺기 위해 사용하는 책략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진술문 중 후자를 선택할 경우 과잉 남성성이 높은 것으로 채점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78이었다.

공감척도

신경일(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공감 척도를 통해 공감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Davis(1980)의 대인관계 반응 지수(Interspersonal Reaction Index), Mehabian과 Epstein(1972)의 정서공감척도를 번역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세 가지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에는 공감적 관심, 정서적 감염(다른 사람의 정서나 위급한 상황에 영향을 받는 정도), 관점 수용이 포함된다. 각 하위 요인의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다. 공감적 관심의 경우 “책이나 영화에 빠지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고통 받고 있는 동물을 보면 매우 마음이 아프다.” 등의 문항이 있다. 정서적 감염에는 “긴급하게 도움이 몹시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나는 통제력을 상실한다.”, “주위의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으면 나는 내일이 계속 잘 되어 간다고 느낄 수가 없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관점수용의 경우 “나는 가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나는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알려고 노력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일의 연구에서 요인 분석을 통해 추출된 33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5점 척도 상에서 반응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신경일의 연구에서 하위 척도별 신뢰도는 공감적 관심의 경우 .81, 정서적 감염은 .62, 관점수용은 .62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적 관심 .73, 정서적 감염 .59, 관점수용 .66으로 나타났다.

강간 통념 척도

강간 통념에 대한 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석재(1999)가 But(1980)의 강간 통념 수용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20문항으로서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부정”(1점)부터 “매우 긍정”(9점)에 이르기까지 총 9점 척도 상에서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간 통념에 대한 수용 정도 역시 높음을 의미한다. 몇 가지 문항을 예로 들면 “강간을 보고하는 대부분의 여자는 그 사건 이전에 이미 많은 성관계를 가졌다.”,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다.” 등의 문항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95였다.

성적 공격성 척도

Koss와 Oros(1982)가 제작하였고 Koss와 Dinero(1988)가 수정한 성적 경험 질문지(Sexual Experience Survey)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번안한 후 10명의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이해되지 않거나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문항을 선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지내오면서 각 문항에 대해 “0회”, “1-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중 어느 정도의 빈도를 보였는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몇 가지 문항의 예를 들면 “상대방 여성이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키스나 애무를 한 적이 있다.”, “상대방 여성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성관계를 하자고 설득한 적이 있다.” 등이 포함된다. 이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공격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95였다.

자료 수집

2007년 5월 1일부터 6월 4일 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강의 시간에 학생들의 양해를 얻어 강의가 끝난 후 배포하고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배포하고 회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사전에 연구 목적과 설문지 구성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주의 사항 등 설문지 작성에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자료 분석

과잉 남성성, 공감, 강간 통념, 성적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공감, 강간 통념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4.0을 사용하였다.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공감, 강간 통념의 매개효과도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5.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모형의 부합도 지수로 χ^2 값과 χ^2/df , 기초부합지

수(Goodness Fit of Index: GFI), 수정 기초부합지수(Adjusted Good Fit of Index: AGFI), 비교부합지수(Comparative Fit of Index: CFI), 표준부합지수(Normed Fit of Index: NFI), 증분부합지수(Incremental Fit of Index: IFI), 원소간 근접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모수에 대한 추정방식으로는 AMOS의 기본 추정 방식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을 선택하였다.

결 과

과잉 남성성, 공감, 강간 통념과 성적 공격성의 상관관계

남자 대학생의 과잉 남성성, 공감, 강간 통념과 성적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과잉 남성성은 성적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41$, $p<.001$. 또한 공감과 강간 통념 역시 성적 공격성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는데 공감의 경우 성적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r=-.35$, $p<.001$. 공감의 하위 요인과 성적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공감적 관심($r=-.37$, $p<.001$), 관점 수용($r=-.30$, $p<.001$)은 성적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적 감염의 경우 성적 공격성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r=.02$, $n.s.$. 한편 강간 통념은 성적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41$, $p<.001$.

표 1. 과잉 남성성, 공감, 강간 통념과 성적 공격성의 상관관계 (N=355)

	성적 공격성	과잉 남성성	공감총점	공감적 관심	정서적 감염	관점 수용	강간통념
성적 공격성	1.00						
과잉 남성성	.41***	1.00					
공감 총점	-.35***	-.23***	1.00				
공감적 관심	-.37***	-.23***	.88***	1.00			
정서적 감염	.02	-.04	.48***	.16**	1.00		
관점수용	-.30***	-.18**	.63***	.38***	.07	1.00	
강간통념	.41***	.37***	-.18**	-.18**	.02	-.16**	1.00
M	26.32	41.14	109.22	67.15	22.81	19.27	60.40
SD	13.07	5.11	11.63	8.12	4.11	3.94	29.24

주. ** $p < .01$ *** $p < .001$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중재효과

남자 대학생의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감은 공감적 관심, 정서적 감염, 관점 수용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성적 공격성과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정서적 감염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과잉 남성성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감적 관심과 관점수용을 투입하였다. 또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과잉 남성성과 공감적 관심의 상호작용, 과잉 남성성과 관점수용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과잉 남성성은 성적 공격성의 변량을 16.6%($p < .001$) 설명해주었으며 공감, 강간 통념 역시 성적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였다. 공감은 9.9%

($p < .001$)의 설명력을 나타냈는데 공감적 관심($\beta = -.23, p < .001$), 관점수용($\beta = -.15, p < .01$) 모두 성적 공격성의 변량을 유의하게 예측해주었다.

특히 과잉 남성성과 공감의 상호작용이 2.1%($p < .05$)로서 성적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 요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과잉 남성성과 공감적 관심의 상호작용은 성적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였다($\beta = -.14, p < .01$). 그러나 과잉 남성성과 관점수용의 상호작용은 성적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beta = -.02, n.s$).

따라서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공감이 중재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동일한 수준의 과잉 남성성을 갖고 있는 남성이라도 공감 수준의 차이에 따라 성적 공격성 역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데 특히 공감의 하위 요인 중에서도 타인에 대한 공감적 관심의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적 공격성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공감의 중재효과 (N=355)

독립변인	B	β	t
과잉남성성	1.04	.41	8.38***
$R^2=.166(p<.001)$			
$\Delta R^2=.166(p<.001)$			
공감적 관심	-.38	-.23	-4.63***
관점수용	-.51	-.15	-3.08**
$R^2=.265(p<.001)$			
$\Delta R^2=.099(p<.001)$			
과잉남성성×공감적 관심	-.04	-.14	-2.76**
과잉남성성×관점수용	-.01	-.02	-.37
$R^2=.286(p<.05)$			
$\Delta R^2=.021(p<.05)$			

주. * $p<.05$ ** $p<.01$ *** $p<.001$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강간통념의 중재효과

남자 대학생의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강간 통념의 중재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는 과잉 남성성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는 강간 통념을, 세 번째 단계에는 과잉 남성성과 강간 통념의 상호작용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강간 통념 역시 7.9%($p<.001$)로 성적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였다. 그러나 과잉남성성과 강간통념의 상호작용은 성적 공격성의 변량을 유의하게 예측해주지 못하였다($\beta=.06, n.s$). 따라서 강간통념의 중재 효과는 확인되지 못하였다.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공감, 강간 통념의 매개효과

남자 대학생의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공감, 강간 통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감과 강간통념을 매개변인으로 한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매개모형을 가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가정한 매개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chi^2(7, N=355)=12.76, p=.08, \chi^2/df=1.82, GFI=.99, AGFI=.97, CFI=.98, NFI=.96, IFI=.98, RMSEA=.05$ 로 나타났다.

GFI, AGFI, CFI, NFI, IFI는 .9이상이면 좋은 부합도로 간주되며 RMSEA의 경우 <.05이면 좋은 부합도, <.08이면 괜찮은 부합도, <.10이

표 3. 남자 대학생의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강간통념의 중재효과 (N=355)

독립변인	B	β	t
과잉남성성	1.04	.41	8.38***
$R^2=.166(p<.001)$			
$\Delta R^2=.166(p<.001)$			
강간통념	.14	.30	6.09***
$R^2=.245(p<.001)$			
$\Delta R^2=.079(p<.001)$			
과잉남성성 × 강간통념	.00	.06	1.19
$R^2=.248(n.s)$			
$\Delta R^2=.003(n.s)$			

주.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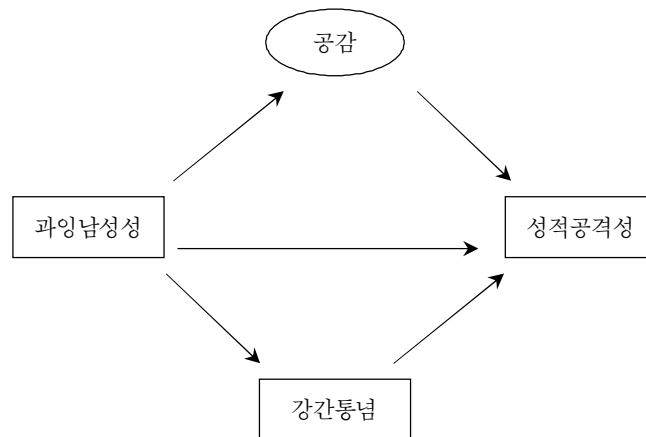


그림 1.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공감, 강간 통념의 매개모형

면 보통 부합도, >.10이면 나쁜 부합도로 평가된다(Brown & Cudeck, 1993). 이러한 부합도 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가정한 매개모형의 부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에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공감, 강간 통념의 매개 모형의 경

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잉 남성성에서 공감으로 가는 경로는 $-.32(p<.001)$, 공감에서 성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는 $-.38(p<.001)$ 로 유의하여 공감은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잉 남성성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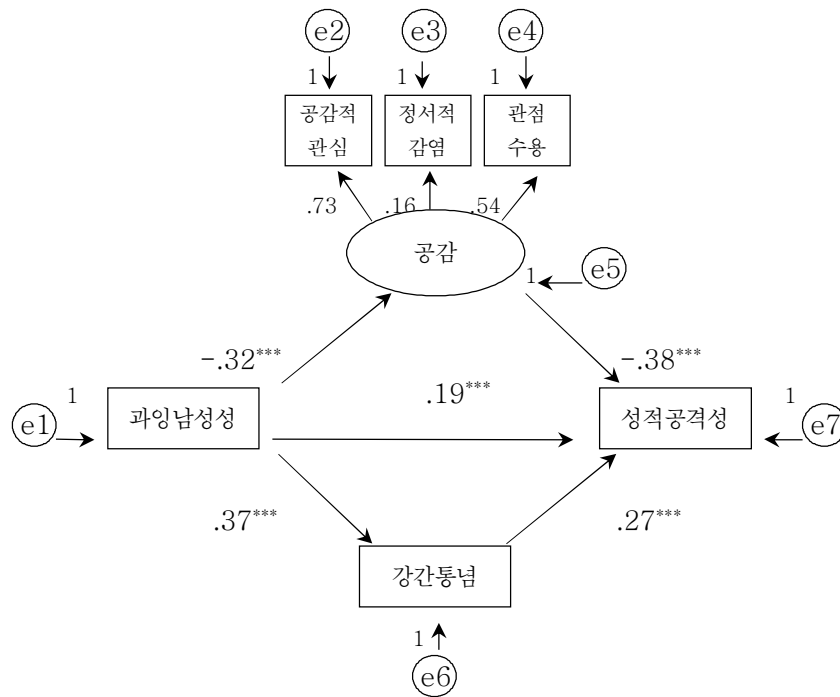


그림 2.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공감, 강간 통념의 매개효과

강간통념으로 가는 경로는 $.37(p < .001)$, 강간통념에서 성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는 $.27(p < .001)$ 로 유의하여 강간 통념 역시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잉 남성성에서 성적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 역시 $.19(p < .001)$ 로 유의하여 공감과 강간 통념은 완전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과잉 남성성, 공감, 강간 통념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들이 각각 성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효과 모형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chi^2(9, N=355)=86.72, p=.00, \chi^2/df=9.64, GFI=.92, AGFI=.82, CFI=.71, NFI=.70, RMSEA=.16$ 으로서 본 연구에서 가정된 매개 모형에 비해 부합도 지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효과 모형보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공감, 강간 통념의 매개 모형이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성적으로 공격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성적 공격이 과잉 남성성 및 공감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 대두되었다. 다양한 성적 공격성의 연구 결과는 데이트 폭력 및 대학 내의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성폭력 가해자의 치료개입 프로그램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성적 공격성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이

러한 개입의 타당성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선행논문에 의하면 적대적이거나 과도한 남성성 및 낮은 공감은 성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강간 발생과 관련된 일반인들의 잘못된 통념들은 남성들의 성적 공격행동이나 폭력을 정당화하였고 여성들을 성적인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거듭나는 과정을 방해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과잉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공감 및 강간통념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하였다.

우선 과잉남성성, 공감, 강간통념과 성적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이러한 변인과의 관계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즉 과잉남성성이 높을수록, 공감이 낮을수록, 강간통념이 높을수록 성적인 공격성의 정도도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석재, 최상진, 2001; Norris et al., 1999; Gold, Fultz, Burke, Prisco, & Willett, 1992; Farr et al., 2004). 예컨대 이석재와 최상진(2001)의 강간 통념 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연구에서도 강간통념은 성행동 및 성폭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신의 성격특성을 남성적이라 지각할수록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고 성관련 행동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본 연구결과에서 과잉남성성과 강간통념이 성적인 공격 행동을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는 일반대학생 및 알콜 문제를 지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Locke와 Mahalik(2005)의 연구와 유사하다. 더불어서 이들의 연구에서는 더불어서 심각한 알콜 문제를 지닌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강간 통념수용과 관계없이 성적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격적인 성행동에 있어 알콜의 문제가 강간통념 보다 더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이기도 하다. 최근의 연구에서 남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데이트 강간에 대한 지지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사한 입장의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수행된 바 있는데, 윤병해와 고재홍(2006)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성차별태도와 성폭력 피해자 비난과의 관계에서 강간통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과잉남성성과 성적인 공격과의 사이에서 공감과 강간통념이 각각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확장된 Confluence 모델의 타당성을 우리나라 남성에게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동시에 성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치료적 개입에 있어 공감능력의 향상 및 비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강간 통념을 재구성하는 작업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공감의 경우 과잉남성성과 성적 공격성에 있어 매개 뿐 아니라 중재 효과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Wheeler 등(2002)의 연구와 일치하며, 이는 성적인 공격성이 높은 남성들에게 공감이 보호요인임이 확인된 것이다.

남성의 성적 공격성이나 성폭력 문제의 유발에 있어 공감능력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자들에게 의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의 문제를 지닌 이들이 공감 자체가 문제인지 공감에 있어 특정 영역이 문제가 되는지에 관해 Marshall, Hudson, Jones 및 Fernandez(1995)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즉 이들이 모든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에 대해서만 공감수준이 저하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송원영 등(2005)은 이를 토대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의 공감능력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는지, 특정한 공감능력이 저하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

추어 연구한 바 있다. 이들이 사용한 공감척도는 Davis(1980)가 개발한 대인관계반응 척도(IRI)이다. 그 결과 청소년가해자들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공감능력이 일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 중 상상과 개인적 고통 차원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여기서의 상상은 소설이나 영화에 몰입하는 경향을 말하며,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부정적인 경험을 보았을 때의 불편함, 불안 경향을 말한다. 이는 Smallbone(2003)이 Davis(1983)의 대인관계 민감성척도를 공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한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그의 연구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들은 공감적 관심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공감적 관심의 특징은 부정적인 경험을 겪고 있는 타인에 대한 관심, 연민, 온정의 경향이다. 본 연구에서도 성적 공격성에 대해 공감적 관심에서 중재효과를 보이고 있어 일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나 Smallbone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간통념이 성적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과잉남성성과 성적 공격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으나 중재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Wheeler et, al, 2002)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청소년 집단 연구의 강간통념 평균과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대상자들의 점수가 다소 낮은 점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예방적인 개입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보호요인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과잉남성성이 성적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감과 강간통념을 통해 이들 간의 관계에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재 역할을 한다면 공감능력의 향상이나 강간통념을 재수정하는 상담이나 프로그램의 개입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Hall과 Barongan(1997)은 성적 공격 행동은 성적 공격성에 관대하고 수용적이거나 때로 보상이주어지는 문화들에서 나타는 것으로서 여성주의와 다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성적 공격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기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송원영(2005)의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안에 가해자들이 지니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수정하는 인지 행동적 접근을 소개한 바 있으며, 부분적이거나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의 촉진을 포함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성폭력의 문제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성적 공격행동 및 데이트 폭력 등을 함께 고려 할 때 대학생 대상의 성교육이나 가해자들의 치료적 개입에 무엇이 필수적이어야 할 것인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즉 성적 공격성의 문제를 지닌 이들을 위한 개입에 있어 이들이 지닌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인지적인 오류를 수정하는 개입 이외에 공감적 관심을 촉진하는 치료적 개입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지방소재 대학 2개교의 남자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성적 공격성에 관한 본 연구 결과를 일반 대학생 전체에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며, 특히 남자 대학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성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관한 후속 연

구가 요망된다. 또한 두 집단의 과잉남성성과 성적 공격성의 경로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개입과 일반 대학생들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차별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성의 수준에 있어 성피해 가해자와 일반 대학생들의 양적이고 질적인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검토도 요망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매개 변인으로 상정한 공감과 강간통념 이외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예컨대 성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알콜 문제, 반사회적인 성격, 개인의 폭력에 대한 노출 경험 등을 고려한 모델 검토를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에 있어 과잉남성성에 한정하여 성적 공격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남성성의 다차원적인 측면들 예컨대 성공 추구, 통제된 정서, 동성애에 대한 혐오 등과 성적인 공격성과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차원적인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과의 관계 이해를 더욱 확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영 (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경찰, 의사, 교사, 법조인, 상담원, 언론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김정규, 김중술 (2000). 아동기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49-769.

박 경 (2006). 여대생의 성피해 경험과 자살 사고와의 관계: 귀인양식과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3), 327-344.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15.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회지, 2, 75-98.

서경현, 이경순 (2002).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 353-369.

송원영 (2005).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인지행동치료를 중심으로. 청소년 위원회. pp.15-30. 10월 27일. 서울: 연세의료원 은명 대강당.

송원영, 오경자, 신의진, 이영준, 오태성 (2005).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의 피해자 공감. 한국임상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포스터, pp.63-69.

송진경 (2003). 대학생 성피해자들의 후유증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경일 (1994). 상담자 교육을 위한 공감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부산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신행우 (2001). 남성성 과잉(hypermascularity)과 음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391-398.

안귀여루 (2006). 대학생의 성적강요 경험과 성격특성, 태도 및 성장기 폭력 경험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47

- 62.
-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이미경 (2001).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생명연구*, 4, 157-175.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성폭력 성매매 가해자 교정 교화 프로그램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riggs, D., Doyle, P., Gooch, T., & Kennington, R. (1998). *Assessing Men Who Sexually Abuse: a Practice guide*. London: Jessica Kingsley.
- Bunting, A. B., & Reeves, J. B. (1983). Perceived male sex orientation and beliefs about rape. *Deviant Behavior*, 4, 281-295.
- Burt, M. R. (1980). Cultural myth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 Caputo, A., Frick, P. & Brodsky, S. (1999). Family violence and juvenile sex offenders: a closer look.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 653-656.
- Darling-Milloy, C. (1998). Specialised treatment for juvenile sex offenders: a closer look.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 653-656.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avis, T. L., & Liddell, D. L. (2002). Getting inside the house: The effectiveness of a rape prevention program for college fraternity 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3, 35-50.
- Fantuzzo, J. W., & Mohr, W. K. (1997). Prevalence and effects of chil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Future of Children*, 9(3), 21-32.
- Farr, C., Brown, J., & Beckett, R. (2004). Ability to empathies and masculinity levels: comparing male adolescent sex offenders with a normative sample of non-offending adolescents. *Psychology, Crime & Law*, 10(2), 155-167.
- Gold, S., Fultz, J., Burke, C., Prisco, A., & Willett, J. (1992). Vicarious emotional responses of macho collegemales. *Journal of International Violence*, 7, 165-174.
- Hall, G. C. N., & Barongan, C. (1997). Prevention of sexual aggression: Sociocultur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psychologist*, 52(1), 5-14.
- Hanson, R. K. (2003). Empathy deficits of sexual offenders: A conceptual model.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9(1), 13-23.
- Koss, M. P., & Dinero, T. E. (1988). predictors of sexual aggression among a national sample of male college students. Conference of the

-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Human Sexual Aggression: Current Perspectives (1987, New York).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528, 133-147.
- Koss, M. P., & Gaines, J. A. (1993). The prediction of sexual aggression by alcohol use, athletic participation, and fraternity affili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8, 94-108.
- Koss, M. P., Gidycz, C. A., & Wisniewski, N. (1987). The scope of rap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162-170.
- Koss, M. P., & Oros, C. J. (1982). Sexual experiences survey: a research instrument investigating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3), 455-157.
- Linsey, R., Carozzi, A., & Eells, G. (2001). Differences in the dispositional empathy of juvenile sexual offenders, non-sex offending delinquent juveniles and non-delinquent juveni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 510-522.
- Locke, B. D., & Mahalik, J. R. (2005). Examining masculinity norms, problem drinking, and Athletic involvement as predictors of sexual aggression in college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278-283.
- Malamuth, N. M., Sockloskie, R. J., Koss, M. P., & Tanaka, J. S. (1991). Characteristics of aggressors against women: testing a model using a national sampl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5), 670-681.
- Malamuth, N. M., Linz, D., Heavey, C. L., Barnes, G., & Acker, M. (1995). Using the confluence model of sexual aggression to predict men's conflict with women: a 10-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2), 353-369.
- Marshall, W. L., Hundson, S. M., Jones, R., & Fernandez, Y. M. (1995). Empathy in sex offen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5(2), 99-113.
- McGruder-Johnson, A. K., Davidson, E. S., Gleaves, D. H., Stock, W., & Finch, J. F. (2000). Interpersonal violence and posttraumatic symptomatology: The effects of ethnicity gender and exposure to violent ev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2), 205-221.
- Mehrabian, A., & Epstein, N. A.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Mills, C. S., & Granoff, B. J. (1992). Date and acquaintance rape among a sample of college students. *Social Work*, 37(6), 504-509.
- Mosher, D., & Sirkin, M. (1984). Measuring a macho personality constell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8, 150-163.
- Mosher, D. L., & Anderson, R. D. (1986). Macho personality, sexual aggression and reactions to guided imagery of realistic rap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 77-94.
- Norris, J., George, W., Cue Davis, K., Martell, J., & Leonesio, R. (1999). Alcohol and hypermasculinity as determinants of men's

- empathic responses to violent pornograph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 683-700.
- Russell, D. (1982). The prevalence and incidence of forcible rape and attempted rape of females. *Victimology*, 7, 81-93.
- Ryan, G.. (1997). Phenomenology: a developmental -contextual view. In G. Ryan and S. Lane(Eds), *juvenile Sexual Offending: Cause, Consequences and Correction*(pp.122-135). San Francisco: Jossey-Bass.
- Smallbone, S. W., Wheaton, J., & Hourigan, B. (2003). Trait empathy and criminal versatility in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15(1), 49-60.
- Tjaden, P., & Thoennes, N. (2000). *Full report of the prevalence, incidence, and consequences of violence against women*(NCJ Rep. No. 183781).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Truman, D., Tokar, D. M., & Fischer, A. R. (1996). Dimensions of masculinity: Relations to date rape supportive attitudes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 555-562.
- Wheeler, J. G., George, W. H., & Dahl, B. J. (2002). Sexual aggressive college males: empathy as a moderator in the “Confluence Model” of sexu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795-775.
- 원 고 접 수 일 : 2007. 12. 24
수정원고접수일 : 2008. 4. 2
게 재 결 정 일 : 2008. 5. 9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and Rape Myth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yper Masculinity and Sexual Aggression in Male University Students

Kyung Park

Seoul Woman's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and rape myth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yper masculinity and sexual aggression are examined. The group under investigation were 355 college male students. The indices examin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index of hyper masculinity, empathy, rape myths, and sexual aggres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hyper masculinity, empathy, and rape myths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xual aggression. Among these, empathy seems have the strongest relationship with sexual aggression. Empathy was identified as a medi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 between excess masculinity and sexual aggression, however, rape myths did not have any mediating effect. In the test of moderating effects us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empathy and rape myths operated as moderate variables. However, the mediating effect was only partial because the path from excess masculinity to sexual aggression showed a significance relation. Finally,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s well as some of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Key words : *hyper masculinity, sexual aggression, empathy, rape myths*